

중국 자본, 한류 콘텐츠 잠식 나섰다

한중 FTA 체결의 명과 암

中, 해외콘텐츠 제한 등 규제 강화
'하이드 지킬, 나' 직격탄 손해 막심
콘텐츠 수출 위해 공동제작 불가피
"한국, 제작 대행으로 전략" 우려도

21일 첫 방송한 SBS 수목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하이드). 톱스타 현빈이 4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는 무대라는 점에서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국내는 물론 한류스타로서 현빈의 활약을 기대하는 해외의 관심도 높았다. 이에 따라 드라마 판권 수출 등에 대한 제작진의 기대지도 컸다. 하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한 중국 측의 발빠른(?) 대응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SBS와 제작진은 직전 방송한 '피노키오'가 역대 최고가인 회당 3억원에 팔린 만큼, '하이드'가 그 수준을 무난히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중국 측이 제시한 금액은 그 3분의1 수준인 약 1억1000만원. 결국 1억3000만원에 계약을 마쳤지만 방송사와 제작진으로선 크게 아쉬울 수밖에 없다.

● '한중 FTA, 열린 빔장만큼 또 다른 빔장'
'하이드'의 '발목'을 잡은 것은 중국신문 출판광전총국이 지난해 9월 내놓은 '올라온 해외 동영상 관리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



통지'. 자국 콘텐츠를 보호하려는 중국 측은 이를 한중 FTA 발효 이후 적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1월1일부터 전격 시행하면서 '하이드'가 그 첫 대상이 됐다.

이 규정은 '각 사이트의 연간 해외 콘텐츠 수입량이 중국 콘텐츠 총량의 30%를 넘기면 안 된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중국의 사전심의 절차는 짧게는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그 기간 국내 드라마 콘텐츠는 불법다운로드 등을 통해 쉽게 유포될 수 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사전심의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동시시간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사전심의라는 벽에 부딪히게 됐다. 국내 드라마 관계

자들은 "중국 측의 움직임은 콘텐츠의 가치만 떨어뜨려 결국 한국 드라마 콘텐츠를 헐값에 사겠다는 의도 아니겠느냐"며 의심의 시선을 보낸다.

● "공동제작을 노려라?"

이와 관련해 공동제작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공동제작의 경우 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별에서 온 그대' 등을 만든 HB엔터테인먼트 윤현보 드라마본부장은 "실질적 효과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중국과 공동제작을 통한 협력이 그나마 좋은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 공동제작을 통해 중국 자본을 좀 더 끌어들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박상주 한국드라마

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중국 자본으로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고, 더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도 "투자 자본이 많으면 '메이드 인 차이나' 즉, 중국 드라마가 되고, 나중에 국내 제작진은 대행자로 전락할 수 있다. 방송사와 제작사는 물론 정부 당국 모두 급변하는 시장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국내 엔터테인먼트업계는 "중국 시장의 빔장이 열렸다"며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는 이제에 비추어 실제적인 대비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하이드 지킬, 나' vs '킬미 힐미' 유사 논란

다중인격 장애 주인공 설정 겹쳐
'하이드' 원작자 "도둑질한 드라마"

잇을 만하면 볼거리는 드라마 유사성 논란. 특히 화제작이던 통과리체처럼 벌어지는 논란이어서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MBC 수목드라마 '킬미 힐미'와 SBS '하이드 지킬, 나'(하이드)가 관련 논란에 휩싸여 시끄럽다. '다중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 남자'라는 흔치 않은 소재를, 그것도 동시간대 방송하면서 유사성 논란이 예정된 수순처럼 등장했다.

21일부터 방송한 '하이드' 원작인 웹툰의 이창호 작가가 22일 '킬미 힐미'를 "(내 아이디어를)도둑질한 드라마"라고 비난했다. 그는 "다중인격 장애를 겪는 남자의 인격(하이드)과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로맨틱 코미디는 내가 2011년 그린 웹툰 '지킬 박사는 하이드씨'가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킬미 힐미' 제작사 팬 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 제작과 관련해 2년 전 발표했고, 방송한 지 3주가 넘었다. 왜 지금에서야

야 논란을 일으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상도 의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가장 당혹스러운 쪽은 '하이드' 제작사. 에이치이엔엠 측은 "드라마를 만드는 입장에서 마음 편하지만은 않다"면서 "'킬미 힐미'와 소재 측면에서 겹칠 수 있으나 드라마가 진행되다 보면 각자 색깔이 다를 것이다"면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분주한 표정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이수, 여론 악화로 하차 '나가수3' 출발부터 삐걱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물의 발목
첫 녹화까지 마치고 출연진 제의

MBC 예능프로그램 '나는 가수다3'(나가수3)가 출발선에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MBC는 22일 오전 "이수를 출연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1일 첫 녹화를 마쳤지만 이수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출연자 명단에서 빼버렸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제작진의 안이한 태도에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은 이미 예견됐다. 이수의 출연 소식에 대중의 시선은 차가웠다. 그가 2009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제작진은 이수의 출연을 강행했다.

21일 이수는 이를 의식한 듯 "음악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프로그램으로, 노래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싸늘했다. 한때 큰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수를 무대에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여론의 눈치를 살핀 제작진은 결국 이수에 대해 하차 결정을 내렸다.

게다가 MBC 측은 시청자의 의견을 처음부터 존중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수에게는 하차 결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 출연출자인 강영선 PD조차도 언론 보도 이전에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까지 했다. 이수 측은 "MBC의 일방적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MBC는 지난해 '야빠! 어디가?'에 과거 방송과 SNS상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모은 가수 김진표를 캐스팅했다 시청자의 비난 속에 하차시켰다. 뒤이어 '나가수3'로 또 다시 같은 제작상 허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JYJ가 일본에서 발표한 첫 싱글이 발매 당일 오리콘 일간차트 2위에 올랐다.
사진제공 | 씨제스엔터테인먼트·오리콘차트 캡처

JYJ, 식어가는 일본 한류의 새로운 불씨

첫 일본어 음반 오리콘 차트 2위

그들 JYJ의 첫 일본어 음반이 현지 음반 매장 차트 1위에 올랐다. 오리콘 차트에서도 2위를 차지하며 일본 케이팝의 새로운 불씨를 제공하고 있어 시선을 모은다.

일본 오리콘에 따르면 21일 JYJ가 발표한 첫 싱글 '웨이크 미 투나잇'이 당일 오리콘 일간차트 2위에 올랐다. 또 같은 날 타워레코드, HMV 일간차트 등에서 1위를 기록했다.

'웨이크 미 투나잇'은 JYJ가 동방신기에서 분리된 후 처음으로 자신들의 이름으로 일본에서 발표한 정식 음반이다.

JYJ는 한동안 일본의 옛 소속사 에이벡스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벌이느라 현지 활동에 많은 제약을 감수해야 했다. 이번 음반도 콘

서트 무대를 통해 먼저 곡을 선보인 뒤 두 달이 지나서야 유통이 가능해질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보란 듯 발표 첫 날부터 성과를 냈다.

JYJ는 이번 음반에 앞서 현지 연예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대형 기획사 케이닷슈 그룹과 손잡았다.

일본 내에서 여러 모양으로 '전제'를 받아온 JYJ로서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으면서 향후 활약을 기대하게 한다.

JYJ가 작년 여름 국내에서 내놓은 정규 앨범 '저스트 어스'는 일본에서 정식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타워레코드 월간차트 1위 및 오리콘 주간차트 2위를 기록했다. 11·12월 두 달 동안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3개 도시를 투어로 24만 관객을 동원하며 뜨거운 팬심도 확인했다.

김현경 기자 gymmy@donga.com 트위터@ziodadi

'국제시장' 황정민·김윤진 나란히 해외로

황정민 '히말라야' 네팔 현지 로케
김윤진 '미스트리스' 촬영 미국행

영화 '국제시장'으로 1000만 관객 흥행에 성공한 배우 김윤진과 황정민이 나란히 해외로 향한다.

먼저 김윤진은 2월 중순 미국으로 출국한다. ABC 드라마 '미스트리스' 시즌3 촬영을 위해서다. 2013년 1편부터 주연으로 활약해온 그는 캐나다 밴쿠버를 무대로 새롭게 펼쳐지는 이번 시즌에서는 극



▲황정민

김윤진▲

중 비중을 더욱 늘렸다.

김윤진은 매년 한 편씩 미국 드라마를 소화하고 동시에 한국영화에 참여하는 균형 잡힌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특

히 '국제시장' 흥행 덕에 더 주목받는 상황인 만큼 '미스트리스' 시즌3 촬영을 마치고 6~7월께 돌아와 또 다른 영화에 참여할 계획이다.

황정민이 향하는 곳은 네팔이다. 현재 강원도 영월에서 한창 촬영이 진행 중인 영화 '히말라야'의 현지 로케 때문이다. 3월 초 네팔로 날아가는 황정민은 에베레스트 설산에 숨진 채 방치된 동료의 시신을 수습하는 몽클한 과정을 연기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현재 안나푸르나 등 두 세 지역을 후보로 놓고 촬영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연예뉴스 스테이션

롯데 강민호, SBS 신소연 기상캐스터와 열애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강민호(30·왼쪽 사진)와 SBS 신소연(28·오른쪽 사진) 기상캐스터가 사랑에 빠졌다. 이들은 2012년 8월 신소연이 부산 사직구장 시구자로 나서면서 인연을 맺었다. 신소연의 고향이 롯데 연고지인 부산이어서 강민호와 빠르게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강민호가 전지훈련차 미국으로 출국할 때 신소연이 인천국제공항까지 나와 배웅하는 모습이 여러 관계자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강민호는 2004년 롯데에 입단해 국가대표 포수로 활약하고 있다. 신소연 캐스터는 2011년부터 SBS 기상캐스터로 일하고 있다.

'토토가' 상호 도움 논란 클럽 "이름 바꾸겠다"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토토가)와 유사한 상호로 논란을 일으킨 서울 강남의 '토토가요' 클럽이 "상호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22일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면서 향후 '토토가요'라는 상호를 쓰지 않고 관련 콘텐츠 역시 홍보 문구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앞서 MBC는 '토토가'의 고유 콘텐츠가 무단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토토가요' 클럽 등에 내용증명을 보낼 계획을 알렸다.

송해, 90수 기념 빅쇼 앞서 "사실은 올해 89살"



원로 방송인 송해(사진)가 자신의 나이와 관련된 오해에 직접 해명했다. 송해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립관개서 열린 '송해 90수 기념 빅쇼' 콘서트 기

자간담회에서 "올해 우리 나이로 89살"이라고 밝혔다. 공연 제목을 '90수'로 표현한 것에는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얘기할 때 예능리가 있지 않느냐"며 "88살, 89살된 분도 흔히 '이제 구순이 됐다'고 말하는 분위기가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해는 2월19일 서울 올림픽홀을 시작으로 2월21일 부산 시민회관, 3월1일 창원 KBS홀에서 콘서트 '빅쇼'를 진행한다.

차태연·송중기 소속 불라썬엔터, 음악사업 진출

차태연과 송중기, 고창석 등이 소속된 불라썬엔터테인먼트가 음악 사업에 진출한다. 불라썬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불라썬티에프를 설립하고 영화와 드라마 OST 제작 등 음악 사업을 비롯해 공연제작 사업 등에 뛰어들다. 불라썬티에프는 라다, 디어, 브라더수, 시애틀, 이나래, 러비 등 실력과 싱어송라이터들이 소속된 리얼콜라보와 레이블을 제휴 계약을 맺었다. 이 가운데 디어가 2월 첫 앨범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중국, 일본, 태국 등 해외 파트너들과 협업을 통해 현지 아티스트 공동제작 사업에도 참여한다.

봉준호 감독, 2월5일 개막 베를린국제영화제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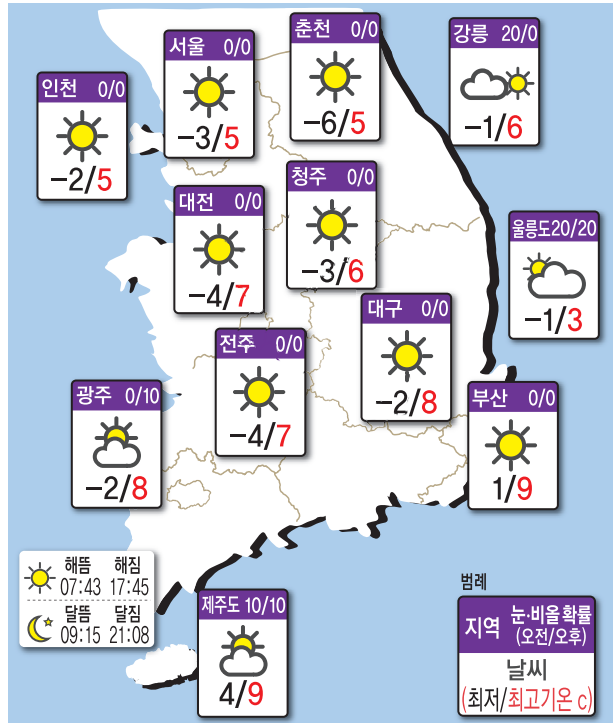


'설국열차'의 봉준호 감독(사진)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참여한다. 봉준호 감독은 2월5일 막을 올리는 제65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2015 우주 발견'을 주제로 하는 베를리날레 토크쇼에서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베를리날레 토크쇼에는 이번 영화제 공로상인 명예 황금곰상을 수상하는 빔밴더스 감독을 비롯해 월터 살레스 감독 등도 참여한다.

편집 | 유진한 기자 haja1787@donga.com·고창일 기자 ico@donga.com

오늘의 날씨

1월 23일 금요일 (음력 12월 4일)



주간 날씨 (내일/화요일)
24일(토) -3/6
25일(일) -2/6

발행인	송대근	대표전화	02 2020 0114	광고문의	02 2020 1010
인쇄인	최명호	편집부	02 2020 1032	구독신청	1588 2020
편집인	이성훈	스포츠1부	02 2020 1044	FAX	02 2020 1015
편집국장	양성동	스포츠2부	02 2020 1041	www.sportsdonga.com	
광고국장	이승욱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74	(주)110-715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	
		생활경제부	02 2020 1062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호
		사건부	02 2020 1068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한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